

# 미국과 한국 페미니즘 영화에 나타난 파워 수트의 사회문화적 의미 비교

윤진영 ·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 Comparison of Socio-cultural Meaning on the Power Suit Expressed in American and Korean Feminism Films

Jin-Young Yoon · Eun-Hyuk Y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kyunkwan University

접수일(2012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 Abstract

In the 21<sup>st</sup> century, woman leaders are able to influence society through improved social status and economic power. From 1980-1990 there was a rapid global social development of feminism and improved media perceptions. The progression of this process is reflected by female characters in feminism films that included a new dress style. The power suit emerged in the U.S.A of the 1980s, as a dress code that showed the workplace uniform of a professional woman and spread to Korea as an influential style. This study defines the different and similar aspects in the development of women's position and the role involved in a structural backgroun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the power suit expressed in American and Korean feminism films. For analysis, this study chose American films in the 1980s and Korean films in 1990s that fulfilled elements about feminism films. Subsequently in American feminism films, the power suit expressed an equal authority with men, strategic use of femininity according to task type, and a dissipation of symbolic effects like a rich look. In Korean feminism films, the power suit expressed an end of femininity like female transvestite, independent female images with the masculinization of appearance, and a mix of new and traditional styles.

**Key words:** Power suit, Feminism film, Femininity; 파워 수트, 페미니즘 영화, 여성성

## I. 서 론

21세기에 국내외 많은 수의 여성들은 높은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으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불과 반세기 전 여성 인력 대부분이 단순 사무직이나 노동직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현

재 리더가 된 장년층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였던 1980-90년대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이 시기 페미니즘과 미디어의 발달은 페미니즘 영화의 종류를 다양화했고, 이는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새로운 복식 스타일에 반영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후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 및 신체 활동이 덜한 3차 산업이 확대되면서 여성도 일로써 인정받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74년과 1986년 사이 미국의 조직 간부, 관리직이나 행정직에서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yim@skku.edu

의 여성 비율이 18.5%에서 37.0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Lipovetsky, 2006/2007). 더욱이 1980년대 미국 페미니즘은 가족 및 노동에서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주로 남성 영역이었던 경제 활동과 공적 영역에 여성 진출이 증가하고 여성만의 특성에 맞는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이 발전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간, 페미니스트와 비 페미니스트 간의 대립과 저항이 아닌 여성들 간의 협력과 동조를 기반으로 한 자매애와 여성 본연의 매력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단순 노동직의 여성 노동 구조에서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전문 관리직 종사자 비율이 1982년 5.9%, 1995년에는 11.4%로 급증하면서 여성의 지위변화와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Statistics Korea, 2011). 경제 구조변화뿐 아니라 군사정권에서 벗어난 1990년대 문민정부 수립 및 대중문화 발달과 국내 영화 산업의 전성기라는 사회문화적 환경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의 페미니즘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원동력으로 80년대 사회 운동과 결합했던 진보적 성향에서 점차 90년대의 변화된 정세와 새로운 여성 문화 주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페미니즘 방향과 성격은 Rich(as cited in Nichols, 1985)에 따르면 전통적 영화를 여성 중심의 구조로 수정하여 능동적인 여성이 영화를 진행시키고 여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와 이야기를 설정하는 교정적 사실주의(corrective realism)형 페미니즘 영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주인공 및 여성이 관련된 사건으로 영화 환경이 제시되는 교정적 사실주의형 페미니즘 영화는 이 시기 양국에서 여성의 일과 성공이 공통으로 전개되며 영화 속 여성들이 입고 등장하는 복식 코드의 중심에는 파워 슈트(power suit)가 있다. 복식을 통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사회적 상징 기호로 출현한 미국의 파워 슈트는 한국에서는 일하는 여성을 둘러싼 지역적 맥락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분화되어 수용되었다. 양국에서 파워 슈트는 실제 시대상을 페미니즘 영화에 반영하거나 영화 속 여성들의 파워 슈트를 통한 복식 행동이 여성 관객과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면적 형태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십여 년의 시간차를 보이며 한국에서 확산되고 유행한 파워 슈트는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행 양상 및 의미의 차이를 파악하

는 국지적인 연구의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로 Choi and Ha(2005)는 미국의 80년대 여피와 21세기 우먼파워 패션 스타일을, Entwistle(2007)은 커리어 우먼의 구성요소로 파워 드레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환경변화 속에서 여성 지위변동과 함께 새로운 복식의 출현에 관한 고찰과 함께 보편성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지적인 연구를 연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변화한 시대상과 여성상에 따른 새로운 복식 출현을 반영하는 페미니즘 영화 속 파워 슈트 비교분석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서 차이를 보인 파워 슈트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서 밝힌 교정적 사실주의형 페미니즘 영화 유형을 기반으로, 페미니즘 영화 구성요소 중 역사적, 사회적 여건과 여성 관객들의 성향 및 기대를 형성하는 대중성을 충족시킨 영화를 선정하였다. 페미니즘 영화 속 파워 슈트의 사례 분석을 위해, 61회 아카데미와 46회 골든 글러브 수상작과 당시 인기작으로 국내에 소개된(“Prize-winning film”, 1990) 미국 영화 <Working girl 1987>과 1980년대 뉴욕 금융가를 배경으로 여성들의 도전을 주제로 하는 <Broadcast news 1987>, <Wall street 1985>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미시족 및 커리어 우먼의 일과 사랑을 주제로, 당해 흥행에서 1위 및 4위를 기록한 <결혼이야기 1992>, <가슴 달린 남자 1993>(Yoon, 2010), 영화의 원작이 베스트셀러로 당시 10대 문화상품이 되었고 이후 여성주의 영화로 만들어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5>를 선정하였다(“The ten culture”, 1994).

## II. 국내외 사회변동과 여성의 도전

본 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파워 슈트라는 복식 스타일이 출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사회문화적 구조와 여성 지위변화 및 페미니즘 영화의 발전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양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상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1. 국내외 여성의 지위 변화와 페미니즘 영화 발전

#### 1) 1980년대 미국의 여성상과 페미니즘 영화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1970년대부터 주부들의 정체성 부재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1977년에는 7년 전의 80%에 비해 응답자의 50%만이 기혼여성은 집에만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조사된 것처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생각은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것이 아닌 일을 통한 삶의 정체성 확인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전에는 결혼을 하면 학업을 포기하던 여대생들은 1970년대부터는 졸업 후 자신의 일과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은 졸업 후 결혼이 아닌 경제 활동에 참여했다(Bernstein, 2003/2007). Roos(1981)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 내 결혼유무에 따른 직업분포를 보면 단순직 뿐 아니라 전문직이나 관리직에서도 기혼 여성은 24.7%, 미혼여성은 28.5%가 전문 기술 행정직에 있으며, 단순 사무직도 기혼 39.6%, 미혼 42.4%에 달하면서 타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사회 내 여성의 지위향상도 함께 예고하였다.

수치상의 여성 지위변화와 함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미국 페미니즘 영화는 여성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다루며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및 성에 따른 직업적 차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한 실질적인 쟁점화 중 하나인 1980년대 미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일부 주정부에 적용되면서 여성 임금의 상향조정과 평가가 이루어졌다(MacElroy, 2002/2006). 즉 미국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이 페미니즘 운동과 결합하여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켰다.

여성 지위상승과 높아진 경제력은 페미니즘과 맞물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이 커졌고, 페미니즘 영화 역시 1972년 뉴욕에서 개최된 여성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이전의 미국 영화에서 어머니와 가정 주부역할로 제한되었던 캐릭터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확대시켰다. Palmer(1995)에 따르면 새롭게 창조된 이미지는 전통적인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던 여주인공이 일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의 독립성에 관한 주제로 표현되었다(Fig. 1). 또한 페미니즘 영화를 필두로 TV시리즈물 또한 여성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형사물이라는 강하고 전형적인 남성 장르에 여성의 삶을 대입시켜 장르 자체를 변화시켰다(Fig. 2)(Walters, 1995/1999). 이러한 여성 캐릭터들은 전통적으로 여성과 밀접한 연애나 소비 행동과는 거리가 멀며, 직업 또한 육체적 매력보다 추리하는 형사로 나타났다. 1970년대 말부터 미국 페미니즘 영화는 관객을 향한 성장체성과 여성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1980년대는 이미 전

문직이나 중역 등의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확대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2) 1990년대 한국의 여성상과 페미니즘 영화

한국에서 여성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변화 조짐은 국내만의 특수한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여성 고급인력은 질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1987년 남녀평등 고용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여성 노동 임금에 관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행정 관리직이나 중요한 정책 결정의 요직에서 남성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Sim, 1992). 1990년대 산업구조가 기술 집약적으로 변하고 30~40대의 여성 인구 급증하면서, 확대된 여성 교육기회는 도시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지만, 여성의 지위 변동 속도와 의미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 1980년대 말 영화 속 직장여성은 남자 주인공이 신입사원에서 능력과 열정으로 간부직까지 성공을 이룰 동안, 옆에서 지지해주는 말단 사무직으로 등장했다(Fig. 3). 즉 1980년대 말까지도 여성 캐릭터는 일을 통한 자아성취와 정체성 형성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가정 밖의 공적 영역으로 나가고 남성의 고유한 업종에 진출한 여성이 증가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군사정권 하의 힘과 남성 중심 사회에서 1992년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다양한 문화욕구가 형성되면서 1980년대까지 지속된 남성 중심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시기 직장생활로 독립성과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 영화의 주 관객층을 구성하면서 영화 선택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1990년대 초 상업적인 흥행성과 맞물려 시작한 한국 페미니즘 영화가 일차적으로 가부장 중심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녀평등과 여성에 관련된 주제는 모두 여성 영화라고 불리는 특수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Jeon, 2006). 1990년대 들어 페미니즘 운동은 대학의 여성학과 및 여성문제 연구소 신설 증가와 함께 활기를 띠고 페미니즘 영화 속 여성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과거 한국 영화에서 지배적인 여성의 모습이던 가족 안에서 의미를 찾는 모성과 성이라는 주제는 90년대 사회적 변화의 산물로 등장한 새로운 여성상으로 변화했다(Lim et al., 2007).

1990년대 초반 국내 영화 흥행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영화들은 여성의 일과 사랑, 자아성취와 육아의 갈등을



**Fig. 1. Image of a career woman in suit from the film “Kramer vs Kramer”.**  
From Kauffman. (2011).  
<http://www.tnr.com>



**Fig. 2. Image of a female detective in suit from film “Caney & Lacy”.**  
From Walters. (1995). p. 123.



**Fig. 3. Image of a secretary in suit from the film “The Age of Success”.**  
From The Age of Success. (2004). <http://www.cine21.com>



**Fig. 4. Image of a working mom in suit from the film “Mister Mama”.**  
From Mister Mama. (2004). <http://www.cine21.com>

다른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영화 안에서 자신의 일을 찾아 가정을 떠나는 여성과 결혼으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게 되는 또 다른 여성이 교차되어 등장했다(Fig. 4). 이 시기 페미니즘 영화들은 여성의 일을 통한 경제적 독립성과 자아정체성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남성에 의해 운명의 방향이 좌우되는 한계를 지니거나 연애와 결혼, 육아라는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여성 권익의 정치적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역이나 간부직에서 여성의 비중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페미니즘 영화 또한 이제 막 가정 밖으로 남성 영역에 발을 내민 상황 속에서 일을 통한 독립된 주체와 전통적인 성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과도기적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여성의 사회진출과 새로운 복식 스타일 등장

### 1) 1980년대 여성 여피족 출현과 파워 슈트 등장

1980년대 미국의 20~30대를 중심으로 뉴욕 월 스트리트의 금융업 등 고학력과 고연봉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녀 신중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문화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도시의 경쟁적인 종족을 지칭하는 여피(Yuppie: young, urban, professional, intelligent의 약어)라는 신조어가 신문에 처음 등장하였다(Mendes, 1999/2004). 또한 젊은 여성 여피족과 조직의 중역으로 올라선 파워 우먼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들만을 위한 패션 스타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Farrell-Beck and Parsons(2007)에 따르면 1950년대 베

이비 붐 세대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이들이 착용했던 옷차림들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하나의 유니폼 형태로 통일된 파워 드레싱 스타일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 내 의류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조직 내 중진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슈트는 하나의 유니폼 룩으로 발전했다. 이 슈트는 테일러드 재킷과 무릎길이의 스커트 그리고 블라우스로 구성되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재킷 칼라의 유무, 슈트의 색상 등 세부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음 파워 슈트는 커리어 우먼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성공적인 일을 위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으로 정착했다. 파워 슈트를 통한 복식 행동은 새롭게 사회적 단계에 올라서기 시작한 여성들을 특징하게 구성했을 뿐 아니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술이 되고 여성복 소비에도 영향을 주었다(Entwistle, 2007). 파워 슈트는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선 여성이라 해서 남성의 외모와 옷차림을 완전히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비즈니스 슈트에 블라우스, 스커트, 스카프 매치로 여성성을 가미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파워 슈트를 구성하는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과 잘록한 허리와 스커트 그리고 빗어 넘긴 단발머리는 야망을 가진 여성 전문직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다(Fig. 5). 파워 슈트는 어깨 강조와 오버사이즈 재킷으로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확장시키며 힘과 권위라는 상징과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기술로 작용시켰다(Buxbaum, 2005/2009). 파워 슈트는 캐주얼한 차림이 아닌 과거 남성들만의 공식의상이었던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슈트에 기원을 뒀으로써 과시성을 내포함과 동시에 일하는

여성 안에서도 차별에 대한 욕구를 함께 내포했다. 또한 Molly(as cited in Choi & Ha, 2005)는 여비서와 같은 일반 사무직과 단순 관리직 여성과 구별되기 위한 장치로 파워 수트를 착용한 여성의 외양은 긴 머리와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과한 장신구에서 멀어질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파워 수트의 힘과 권위의 재현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직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다수의 여성들과 옷차림에 탄력을 주며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 여성의 50% 이상이 가정 밖의 일에 종사하게 되면서 고가의 패션 명품 브랜드 뿐 아니라 미국 내 내셔널 브랜드들도 다양한 가격대의 파워 수트를 생산하게 된다(Fig. 6)(Hill, 2004). 1980년대 여성 여피족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파워 수트는 실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한 여성의 외현 뿐 아니라 소비를 통해 그렇게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 2) 1990년대 한국의 파워 수트 수용 및 변형

한국의 여성 복식은 현대 패션의 역사가 길지 않고 전통 복식에서 양장으로 단기간에 바뀐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 성공한 파워 우먼을 상징했던 통일된 스타일의 파워 수트는 한국에서 사회구조 및 전문직 여성들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미국에서 유래한 처음의 형태와 의미가 분화되었다.

미국의 여성 여피족이나 성공한 여성에 대응하는 1990년대 중반 한국의 파워 우먼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무대로 진출한 교수, 글로벌 금융업계 간부 그리고 국내 조직의 요직을 차지한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새로

운 스타일은(“Global Pro woman”, 1996)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프로우먼으로 소개되면서, 남성처럼 짧게 깎은 스포츠형의 플랫 탑(Flat top) 혹은 숏 컷의 헤어 스타일과 박스형의 남성 정통 테일러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성공한 여성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출세지향형의 여피족으로 출현한 반면, 국내에서는 미혼의 화려한 싱글족과 기혼의 미시족으로 나뉘게 된다. 미시족은 기혼임에도 일과 직장 및 자기 관리와 소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주부 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며 하나의 붐을 형성했다(Kang & Jeon, 2007).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경직성과 구속성을 깨는 미시족 현상은 유니섹스의 소비 패턴과 남성화된 여성 패션으로 표출되었다(Fig. 7).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당당한 이미지의 미시족의 옷차림은 직선적인 남성복 형태가 부각되는 테일러드 팬츠 수트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절충된 파워 수트와 달리 남성처럼 보이는 옷차림과 외양변화에 직업과 전문 영역에 도전하는 새로운 여성상이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투영시켰다.

양성성의 개념이 여성학에서 먼저 제기되면서 남성의 영역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자 혁신으로 가치관에서의 양성성이 강하게 나타났고(Ko, 1996), 이에 따라 국내 파워 수트의 의미는 분화되었다. 하나는 남성적인 외양으로 여성적인 매력을 없앤 남성복에 가까운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아이템이나 컬러 혹은 디테일의 세부적 방식으로 혼용된 형태로 재정의될 수 있다. <Fig. 8>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나타내는 허리와 다리를 라인이 없는 재킷과 팬츠로 가리는 남성성과 리본 블라우스와 진한 메이크업으로 여



**Fig. 5. Power suit of the Yuppie.**  
From Mendes. (2004). p. 246.



**Fig. 6. Ready-to-wear power suit (1989).**  
From Hill. (2004). p. 136.



**Fig. 7. Mannish suit of the Missy (1994).**  
From Kum et al. (2002). p. 310.



**Fig. 8. Mannish suit matched with ribbon blouse (1989).**  
From Jeon. (2006). p. 226.

성성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국내의 파워 수트는 남성성을 차용한 복식 행동으로 일에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외면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파워 수트 요소를 조합함을 알 수 있다.

### III. 국내외 페미니즘 영화에 나타난 파워 수트 의미 비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타났던 여성의 지위변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파워 수트 출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양국 페미니즘 영화 속 파워 수트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1980년대 미국 영화에 나타난 파워 수트 의미

##### 1) 남성과의 동등한 권위 표현

영화 속 여성들은 파워 수트 착용과 외양에서의 남성성 차용으로 직장 내 남성들과의 업무 경쟁과 능력에서 동등함을 표출하였다. Foucault(as cited in Conboy et al., 1997/2001)에 따르면 이전까지 사회적 규율은 끊임없이 변하는 패션으로 여성의 몸을 유순하고 왜소하게 만들며, 자신의 변화에만 주의를 집중시키고 반대로 사회지향성은 약화시켰다. 실제 이 시기 커리어 우먼들 뿐 아니라 영화 속 여주인공에게도 직업과 사회성이 강화되면서 유행과 개인적 변화는 약화된다. 영화 속 파워 수트의 어두운 톤, 단순화된 남성 재킷과 직선의 낮은 헬 라인 스커트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조직의 중요한 일을 하는 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성의 한 층위를 구성했다.

Kim(2009)에 의하면 파워 수트를 통한 여성의 남성화는 이전까지 여성에게 요구된 아름다움과 외모 꾸미기에서 벗어나 업무와 권위로 평가받기 위해 남성복과 남성성을 차용한다. 이들은 전례 없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진출과 성공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권위와 공식 영역의 주체였던 남성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옷차림을 포함한 신체적 태도들을 모방하게 된 것이다. 즉 파워 수트는 그 외형적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여성 주체는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 구성체인 여성이 되는 것을 함축한다.

파워 수트는 과거 범률계나 금융계에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남성들이 다채로운 색상과 장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신 정교한 테일러링과 고급스러운 소재의

비즈니스 수트를 통해 지배력을 나타냈던 19세기 남성복의 위대한 포기(The Great Masculine Renunciation)라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Barnard, 2002). 영화 속 파워 수트 또한 비즈니스 수트가 수용하고 포기했던 외형적 부분과 내포된 의미를 차용했다. 복식을 통한 신체 확장 중 어깨 확장은 주로 남성 복식에서 남성의 위력을 나타낸 것처럼 영화 <Broadcast news>에서 여주인공이 착용하는 테일러드형 코트와 원피스 등의 아이템들도 모두 어깨를 확대하여 남성 신체와의 차이를 줄이고 있다.

외양적 측면에서도 여주인공들은 남성의 전형적 신체 태도인 큰 보폭과 당당한 걸음걸이, 간단명료하고 낮은 톤의 말투가 더해지면서 조직의 남성들과 비중이 같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었다. 영화 <Working girl>에서 단순 비서직에서 시작해 자신의 능력으로 협상을 성공 시킨 후 중역으로 발탁되어 첫 출근을 하는 여성 주인공은 영화 전반부보다 더욱 남성화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역삼각형의 허리 부분이 가늘어지는 재킷이 아닌 몸매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넓은 어깨의 박시한 테일러드 재킷에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 차림은 남성복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채색과 양복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양 또한 긴 웨이브 머리에서 단발로 변화했다(Fig. 9).

또한 영화 <Working girl>에서 기업 인수와 합병 관련 회사의 보스로 등장하는 여성은 파워 수트 뿐 아니라 그 위에 걸친 테일러드 코트까지도 어깨를 강조하고 있다. 부하직원들 앞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전체적인 그레이 톤의 착장과 절제된 액세서리 등 옷차림 뿐 아니라 사각의 가죽 서류 가방의 소품과 매치되어 이미 남성과 동등한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이루었음을 암시하고 있다(Fig. 10). 여주인공들은 파워 수트라는 옷차림과 변화된 신체적 태도가 결합된 남성성 요소를 통해 이미 남성과 동등한 성공을 이루었음을 상징해 준다.

##### 2) 여성성의 전략적인 이용

영화 속 파워 수트는 남성성 차용 뿐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양면적 가치도 형성했다. 조직 내에서 여성들은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변형된 파워 수트와 신체적 매력을 가미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Riviere(as cited in Phoca & Wright, 1999/2001)이 주장한 성공한 여성들이 몸짓과 웃음으로 여성스러움을 연기함으로써 남성들이 뛰어난 여성들에게 갖는 불안감을



없에는 가장(假裝)성은 영화 속에서 더욱 전략적으로 여성의 업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발전하였다.

이는 외모 꾸미기와 여성스러운 매력이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이므로, 최대한 신체적 매력 표출을 거부했던 미적 금욕주의라는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업무의 진지함과 권위를 나타낼 때는 여성스러움과 거리를 둔 남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여성스러운 태도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여성성은 악의 없는 가장으로 가면처럼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속에서 일로 평가 받으며, 주어진 지위가 아닌 스스로 획득한 지위를 통한 여성들의 정체성은 여성 자신들을 창조하는 전략들이며 결코 문화의 수혜자로 수동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Simonton, 2011).

이러한 여성성의 양면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 형성되는데 남성은 복장과 신체 활동 그리고 남성성이 동일시되지만, 여성은 여성성을 최대한 없앤 남성복 착용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실제 자아와 성공이라는 욕망을 분리해 특별한 이득을 위해 원래의 여성다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속 파워 슈트 또한 색채, 소품, 디테일, 신체적 태도 등에서 여주인공들의 목적과 욕망에 따라 노출을 통한 과장된 몸짓에서 남성성과 자연스럽게 절충된 여성성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Lakoff(as cited in Mansfield, 2007/2010)에 따르면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정확하고 완곡한 문법을 구사하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여성의 본질적 특성은 영화 <Working girl>에서 장점으로 부각되어 여주인공은 기업 인수를 위한 긴장되고 중요한 회의에서 화이트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남성 중역 대신 친근감 있는 말투로 회의를 이끌었다. 실제 여

성 변화는 어려운 협상일수록 상대방이 그녀가 끈질기고 빈틈없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더욱 여성스럽게 입는 것처럼 영화 <Working girl> 속 여성 중역 또한 평소의 남성스러운 파워 슈트에서 남성 대다수를 상대로 한 중요한 협상 시에는 붉은 색 재킷과 플레어스커트 및 진주목걸이를 매치한 파워 슈트 차림으로 등장한다. 화려한 색채와 액세서리의 매치는 여성스러움을 발산하여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여 남성을 협상에서 불리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Fig. 11).

<Working girl>에서 여주인공은 일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다. 여주인공이 입은 화이트의 심플한 원피스와 파워숄더 재킷으로 구성된 화사하고 부드러운 파워 슈트 룩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이러한 여성성 표출로 업무에 관련된 긴장감을 형성하지 않고 남성 기업주에게 자연스럽고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합병을 성공시킨다(Fig. 12).

### 3) 상징적인 기호작용의 소멸

영화 안에서 파워 슈트는 비단 여주인공인 경제력을 갖춘 전문직 여성 뿐 아니라 그 외의 여성 계층에서도 나타나며 처음에 파워 슈트가 지녔던 상징성이 소멸하였다. 파워 슈트 또한 기호의 하나로 기호의 이미지인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심리적, 정신적 개념을 포함하며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So, 1992). 파워 슈트라는 복식 기호는 고급스러운 슈트 형태의 기표와 고소득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이라는 기의로 구성되었다. 영화 속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들은 실용적이고 편한 캐주얼 차림이 아닌 고가의 슈트를 입음으로써 일하는 여성 중에서도 낮은 월급의 단순직 여성들과 구별되는 파워 슈트



**Fig. 9. Image of a career woman in mannish power suit.**  
by film <Working girl>  
captured. (2011).



**Fig. 10. Image of a professional woman with an attitude.**  
by film <Working girl>  
captured. (2011).



**Fig. 11. Image of a career woman in feminine power suit matched with accessories.**  
by film <Working girl> captured. (2011).

의 기표와 기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여주인공일수록 처음의 파워 수트 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파워 수트가 구별이라는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Steele(as cited in Barnard, 2002)에 따르면 옷차림과 업무의 중요도 사이에 선천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파워 수트는 특정 그룹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자의적 기호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파워 수트라는 코드의 상징적 기능이 약해지면서 파워 수트를 통한 여성 직업과 경제력의 구별작용도 사라졌다. 영화 속에서도 파워 수트는 처음의 기의가 약해지면서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여주인공 외에도 직업이 없는 부유층 여성과 비서직 여성들도 함께 입게 된다. 영화 <Wall street> 속 여성은<Fig. 13> 남편의 사회적 성공과 재력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직업이 없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파워 수트에서 영향을 받은 형태와 색으로 테일러드 칼라와 넓은 어깨의 롱 재킷과 옷에 맞춘 모자 착용을 통해 고소득의 직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리치 룩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후반 실제 미국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일을 가지면서 하이패션 뿐 아니라 내셔널 브랜드 및 패션 관련 잡지에도 파워 수트 스타일링법이 등장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하나의 스타일로 확산되었다. 영화 <Wall street>에서도 상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단순 사무직의 여비서의 옷차림으로 파워 수트 룩이 자주 나타났다. 처음 파워 수트에서 변형되었지만 검정색과 직선적인 실루엣에 여성스러운 화이트 블라우스를 매치해 파워 수트 룩의 하나를 보여주었다(Fig. 14). 이로써 파워 수트는 직장 내 여성의 성공과 경제력이라는 강력한

기의와 기호작용이 소멸되면서 하나의 스타일로 대중화되면서 부유한 여성, 단순 업무직까지 다양한 여성 계층이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1990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파워 수트의 상징성

### 1) 직장 내 성공을 위한 여성성의 포기: 남장 여자

영화 <기습 달린 남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여성 주인공에게 직장은 중요한 어떤 업무도 주지 않는 차별적 공간이다. 일로 성공하기 위해 주인공은 이름부터 머리 모양, 옷차림 모두를 남자로 변장(變裝)하여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남장 여자가 되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의 기저에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 형성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행동으로 여성은 외양으로 평가되며 커리어와 직업적 성공이라는 남성의 정체성 형성에 옷차림은 여성의 경우와 달리 시각적 도구로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Barry, 1996/2002). 이는 남성들은 통일된 비즈니스 수트를 입는 순간 신체적 특성과 조건들이 무의미해지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통해 경쟁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성적 정체성은 고정된 반면 여성의 성유동성은 사회문화적 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성의 남장은 복식 행동을 바꾸는 순간 다시 여성이 되는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된다(Barnard, 2002).

Jacob and Cerny(2005)에 따르면 여성의 남장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자아(self)와 정체성(identity)은 차이가 있는데 심리까지 포괄하는 자아에 비해 정체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므로 외양을 통해 표현되는 성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 확인될 때 인정받을 수 있



**Fig. 12. Image of a feminine power suit.**  
by film <Working girl>  
captured. (2011).



**Fig. 13. Image of a luxurious power suit.**  
by film <Wall street>  
captured. (2011).



**Fig. 14. Image of a secretary in power suit.**  
by film <Wall street>  
captured. (2011).



다. 영화 <가슴 달린 남자> 속 여주인공 또한 남장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실제 자아가 가진 본래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에서의 정체성이 모순을 겪게 된다. 여성이라는 실제 자아는 일과 직장에서 잠시 남성의 외양과 정체성으로 변하며 타인에게 남성이라고 인정되면서 오로지 능력과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평가받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여주인공의 실제 자아까지 남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욕망이나 목적에 따라 여성의 성전도는 가능함을 보여주었다(Conboy et al., 1997/2001). 영화 <가슴 달린 남자>에서 남장 이전의 여주인공은 그 이전이나 동 시대에 직업역할에서 여성에게는 아직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아간다(Fig. 15). 주인공의 남장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다른 여성들과는 구분되는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척박한 현실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영화 <가슴 달린 남자>의 <Fig. 16>은 남성으로의 외양변화가 만들어준 기업 인수 투자 전문가라는 성공한 모습을 나타낸다. 테일러드 재킷과 팬츠, 화이트 셔츠, 넥타이와 짧은 숏 컷 헤어의 완벽한 남성 외양은 직장에서 자신은 남성이고 다른 남성들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승부하고 인정받겠다는 자기 암시 과정을 이끌어냈다. 전문성과 행동력이 강화되어 남성성이 극대화된 남성복 형태의 파워 슈트는 생물학적 몸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의복과 외양에서 남자가 된 후 능력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여성의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였다.

## 2) 여성의 독립성: 외모 및 복장의 남성화

영화 속 여주인공들은 직장가 가정을 가진 여성, 전

업주부이면서 늘 자신의 직업을 꿈꾸는 여성, 직업을 가졌다가 가정생활만 하는 여성까지 다양한 층위의 역할 갈등을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남성화된 아이템의 파워 슈트 착용과 외모변화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내, 엄마가 아닌 독립적인 여성으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뿌리 깊은 가부장적 유교 사상과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된 남성 주류문화의 영향으로 여성 고급 인력의 증가와 사회진출 확대라는 양적 성장에 비해 성역할 규범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점차 90년대 페미니즘 영화에서는 남녀 등장인물이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수직 관계에서 상호수평적으로 변하고 여성의 화려한 사회적 위치와 성공이 재현되지만 실질적인 현실과의 간극도 함께 드러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Mulvey(as cited in Sim, 1999)에 따르면 영화 속에서 여성상은 주체적인 남성성에 비해 객체로서 존재하며 능동성으로 대표되는 일방적인 남성의 시선에서 수동적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여성에게는 능동적인 남성처럼 되고자 하는 동일시가 제2의 본성이자 남성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은 영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속에서 전문직의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가 일로 자아 정체감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폄하하는 태도와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인과 엄마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다”라는 대사에서 드러났다. 여주인공은 남성성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주체적으로 일을 통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및 내면의 변화를 남성스러운 아이টে으로 구성된 파워 슈트나 외모의 남성화로 암시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이혼 후 전업주부에서 여성 작가로 가정 밖의 영역



**Fig. 15. Image of a career woman distressed by sexual discrimination at work.**  
by film <A Man with Breasts> captured. (2011).



**Fig. 16. Image of a career woman in figure 15 dressed up like a man.**  
by film <A Man with Breasts> captured. (2011).



**Fig. 17. Image of a career woman in power suit.**  
by film <Go Alone Like Musso's Horn> captured. (2011).

에서 홀로서기를 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무채색의 엉덩이를 덮는 박스 실루엣의 테일러드 재킷을 많이 착용하는 옷차림의 변화를 보여주었다(Fig. 17).

영화 <결혼이야기>의 여주인공은 일과 가정이 있는 미시족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 내 전형적인 주부역할이 양립하면서, 남편과 갈등한다. 일의 성공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여주인공은 기존의 웨이브 단발머리에서 짧게 머리를 자르고, 극 전개 중 처음으로 팬츠와 매치한 무채색의 남성적인 파워 수트를 입고 나온다(Fig. 18). 즉 파워 수트와 남성화된 외양은 사회 속에서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여성을 정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이 이 변화된 외양으로 자아의 태도와 가치관을 결정짓게 된다(Roach-Higgins, 1995).

이는 파워 수트를 통한 복식 행동 및 외양변화를 통해 출산, 육아, 외조 등 수동적 역할에서 독립적 여성이라는 자아소유개념을 가짐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성역할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스타일의 혼재성: 새로운 스타일과 전통적 스타일

영화 속 직장여성들은 남성성을 차용한 파워 수트를 수용해 사회에 진출한 여성 집단의 의미를 표현하면서도 전통적인 여성스러움을 고수하는 혼재된 양상의 파워 수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지위가 높고 성공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성의 전형인 진한 메이크업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나타나며 파워 수트의 어깨를 강조한 남성적인 테일러드 재킷 실루엣은 그대로지만 색상은 화려한 색상에서 무채색까지 다양하다. 재킷과 매치하는 아이템도 원피스에서 팬츠 그리고 미니스커트까지 나타났다. 이는 당시 국내 패션 트렌드와 여성

본연의 매력과 본질을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결합하면서 다리를 노출하는 짧은 스커트나 몸의 라인을 드러내는 원피스, 비치는 소재 등이 유행한 지역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Jeon, 2006).

영화 <결혼이야기> 속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주공의 출근 복장인<Fig. 19>는 파워 수트의 기본적인 역삼각형 실루엣과 직선 라인, 무채색에서 변형되어 블루의 원색 재킷과 미니길이의 하늘거리는 스커트 차림으로 여성화되어 나타난다. 재킷의 실루엣은 처음보다 남성화되고, 스커트 및 메이크업 같은 여성의 외모 꾸미기는 더욱 여성화된다. 영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모인 세 여주인공은 여성 앵커라는 전문직 여성으로, 성공한 여류 소설가로, 촉망받는 영화감독에서 전업주부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라는 동시대적 여성들의 정체성과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의 파워 수트 스타일은 여성스러운 핑크 색상의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에서 블랙 수트와 베스트, 화이트 셔츠까지 국내 유행 스타일과 결합되어 나타났다(Fig. 20).

국내 영화 속 일하는 여성들은 미국 영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층위가 존재한다. 일하는 여성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결혼 유무와 자녀 유무, 이혼 경험 유무 등에 따라 파워 수트 또한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및 직업종류를 반영하며, 다양하게 조합되었다. 이로써 국내 페미니즘 영화에서는 파워 수트가 처음의 잘 알려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여성 한사람 한 사람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 개인적이고 모호한 기능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개념의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Fig. 18. Image of a power suit accentuating masculinity. by film <The Marriage Life> captured. (2011).



Fig. 19. Image of a power suit accentuating femininity. by film <The Marriage Life> captured. (2011).



Fig. 20. Image of a power suit matched with feminine pearl necklace. by film <Go Alone Like Musso's Horn> captured. (2011).

**Table 1. Social culture meaning of power suits expressed in feminism films of America and Korea**

	Socio-cultural background	Development of the feminism film	Emergence of the power suit		Power suit in feminism film
U.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litical realization of feminism</li> <li>- Preparing a bill for women's rights</li> <li>- Identity of successful women Yupp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sue about independent women</li> <li>- Main character of female as an executive</li> <li>- Reduction of gender rol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action of feminism and film</li> <li>- Conciliatory style of masculinity, femininity</li> <li>- Symbolization of equal power with men</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ression of an equal authority with men</li> <li>- Strategic use of femininity</li> <li>- Dissipation of a symbolical effect</li> </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vilian government</li> <li>- Rise of women as a central culture group</li> <li>- Identity of women breaking from housewife Missi gro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essorial character of Women in film</li> <li>- Increase of feminism films about career women in the 1990s</li> <li>- Importance of traditional ideolog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wer suit as a fashion trend</li> <li>- Division of mannish and feminine style</li> <li>- Symbolization of women who aspire power</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ving up a femininity female transvestite</li> <li>- Independent women masculinization of the appearance</li> <li>- Mix of new and traditional styles</li> </ul>

**IV. 논의 및 결론**

여성의 옷차림과 외모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인 동시에 일정 부분 그들이 속한 사회환경이 투영되는 중도적 입장을 가지게 된다(Dosse, 1996/2003).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재현된 여성 복식 양식은 그러한 결과물을 낳게 한 복식 행동의 주체인 여성과 주체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한 과정을 거꾸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파워 슈트라는 새로운 복식 스타일의 등장과 확산 이면에는 한국의 복식 역사에 연관이 깊은 미국의 영향과 양국의 공통적이면서도 국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환경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업구조 및 인구 구조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경제 문화로의 영향력 증대와 이데올로기로 지속되는 전통적 성역할 사이에서 여성이 취하는 행동의 양상은 여성의 외양으로도 연결된다. Ussher(as cited in Holland, 2004)에 따르면 행하는 여성(doing girl)과 저항하는 여성(resisting girl)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전통적 여성성의 패션 디테일을 사용하고 따르며, 후자는 아름다움의 수용을 거부하며 남성적 옷차림을 통해 전통적 여성성과의 거리를 만든다. 페미니즘 영화 속 여성들과 파워 슈트 착용 또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지역적 특수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하는 여성과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 사이의 다양함을 표출했다.

미국의 경우 영화의 전개는 당시 변화된 페미니즘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와 여성의 본질적인 신체적 매력과 외모 꾸미기를 거부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들끼리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발전이라는 자매애(sisterhood)와 여성성을 수용하고 활

용하는 발전적인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나타났다. 영화 속 여성 간부의 멘토링 역할이나 커리어 우먼 사이의 공생적 관계 속에서 파워 슈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주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여주인공들의 파워 슈트 또한 이념적으로 외형적으로 모두 저항하는 여성보다는 남성성과 전통적인 여성성의 요소들을 양면적 가치로 발전시켜 경쟁력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페미니즘 영화는 사회에서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 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전통적 여성의 영역이 함께 등장하였다. 영화 속 사회진출의 양적 증가에 비해 아직까지는 차별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직장에서 여성들은 저항하는 여성에 가깝게 그려졌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원하는 주인공들은 남성화된 파워 슈트와 남장을 하는 착장 변화로 내면적 상태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1980-90년대 미국과 한국의 페미니즘 영화 속 파워 슈트가 구현했던 의미들은 여성이라는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및 구조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 획득이 어떻게 영화 속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특정 시대에 출현한 복식 스타일에 관한 사회적 접근 뿐 아니라 앞으로 각 시기들을 연결한 총체적 방식과 관점을 통한 복식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Barnard, M. (2002). *Fashion as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Barry, K. L. (2002).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K. N. Jung & E. J. Kim, Trans.). Seoul: Sam in.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Bernstein, C. (2007). *A woman in charge: The life of Hillary Rodham Clinton* (I. J. Jo, Trans.). Seoul: Hyunmun media.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Buxbaum, G. (200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K. S. Kum, H. N. Nam, H. S. Park, & J. S. Huh, Trans.). Seoul: Seoul Culture.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Choi, H. J., & Ha, J. S. (2005). Women power dressing expressed in recent fashion- with reference to the female yuppie style of the 8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5(2), 129-142.
- Conboy, K., Medina, N., & Stanbury, S. (2001). *Writing on the body: Female embodiment and feminist theory* (K. H. Ko, K. S. Kim, D. W. Kim, Y. H. Kim, H. S. Kim, C. G. Park, Y. H. Son, Y. H. Eom, H. N. Yoon, S. J. Lee, N. Y. Jung, A. R. Jo, & A. K. Han, Trans.). Seoul: Hanul.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Dosse, F. (2003). *Historie du structuralism II* (W. K. Kim, Trans.). Seoul: DongmunSun.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Entwistle, J. (2007). Power dressing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areer woman: Social class. In M. Barnard (Ed.), *Fashion theory: A reader* (pp. 209-219). New York: Routledge.
- Farell-Beck, J., & Parsons, J. (2007). *Twentieth century dres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Global Pro woman. (1996, December 7). *Maeil Kyungjae*. Retrieved April 15, 2011, from <http://www.mk.co.kr>.
- Hill, D. D. (2004). *As seen in vogue: A century of American fashion in advertising*. Texas: Lubbock.
- Holland, S. (2004). *Alternative femininities: Body, age and identity (Dress, body, culture)*. New York: BERG.
- Iim, I. S., Yoon, J. W., Chung, H. B., Huh, R. K., Lee, M. H., Tae, H. S., Choi, M. K., Kim, M. Y., Ko, M. S., Shim, Y. S., Kim, H. Y., Lee, H. K., & Lee, S. W. (2007). *The social change and challenge of woman: Criticism about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that cause gender inequality*. Seoul: Good information.
- Jacob, J., & Cerny, C. (2005). Radical drag appearances and identity: The embodiment of male femininity and social critiqu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3), 122-134.
- Jeon, K. O. (2006).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woman 3*.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s.
- Kang, J. M., & Jeon, S. M. (2007). *Advertising: Alchemy of desire*. Seoul: Person & Ideology.
- Kauffman, S. (2011, December 2). Kramer vs Kramer in 1979. *TNR Film classic*. Retrieved July 15, from <http://www.tnr.com/search/apacheslor-search>
- Kim, J. H. (2009). *Aesthetics of appearance adornment and feminism*. Seoul: Bookworld.
- Ko, M. R. (1996). *Bisexuality and femininity*. Seoul: Korean Institute for Woman.
- Kum, K. S., Kim, M. J., Kim, Y. I., Kim, Y. H., Park, M. H., Park, M. Y., Bae, C. B., Shin, H. S., Yoo, H. Y., & Choi, H. S. (2002). *Contemporary fashion 1900-2000*. Seoul: Kyomunsa.
- Lipovetsky, G. (2007). *La troisieme femme* (J. A. Yoo, Trans.). Seoul: Agora.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MacElroy, W. (2006). *Liberty for women: Freedom and femi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E. K. Seo, Trans.). Seoul: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Mansfield, H. C. (2010). *Manliness* (K. J. Lee, Trans.). Seoul: Iho.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Mendes, V. (2004). *20th-century fashion* (J. E. Kim, Trans.). Seoul: Sigong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Mister Mama. (2004). *Cine21*. Retrieved July 15, 2011, from <http://www.cine21.com/search/image>
- Nichols, B. (1985). *Movies and methods II: An anth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lmer, W. J. (1995). *The films of the eighties: A social history*. New York: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Phoca, S., & Wright, R. (2001). *Introducing postfeminism* (G. S. Yoon, Trans.). Seoul: Kimyo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Prize-winning film of Academy awards: Working girl. (1990, May 12). *Donga Ilbo*. Retrieved July 18, 2012, from <http://www.donga.com>.
- Roach-Higgins, E. M.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 Roos, P. A. (1981). *Marital differences in occupational distribution and attainment*. Washington D.C.: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 Sim, J. S. (1999). *Women culture and theory*. Seoul: Dong-In.
- Sim, Y. H. (1992).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sexual violence*. Seoul: Nanam.
- Simonton, D. (2011). *Women in European culture and society: Gender, skill and identity from 1700*. London: Routledge.
- So, D. Y. (1992). *Symbolic science-semiology*. Seoul: Ingan-sarang.
- Statistics Korea. (2011, April 15).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tatistics Korea*. Retrieved May 1, 2011, from <http://www.kostat.go.kr>
- The Age of Success. (2004). *Cine21*. Retrieved July 15, 2011, from <http://www.cine21.com/search/image>
- The ten culture products of 1994. (1994, December 14). *Han-gure newspaper*. Retrieved July 18, 2012, from <http://www.hani.co.kr>.
- Walters, S. D. (1999).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J. M. Kim & J. W. Shin, Trans.). Seoul: Another culture.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Yoon, S. E. (2010). *A study on the variations in and factors influencing Korean romantic comedy movies from the 90's onwar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